

미국 수입 규제 정책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

작 성

선임연구원 김윤지 (3779-6677)
yzkim@koreaexim.go.kr

I. 설문 개요

□ 12개 주요산업 수출 기업 대상 미국 수입 규제안 영향 관련 설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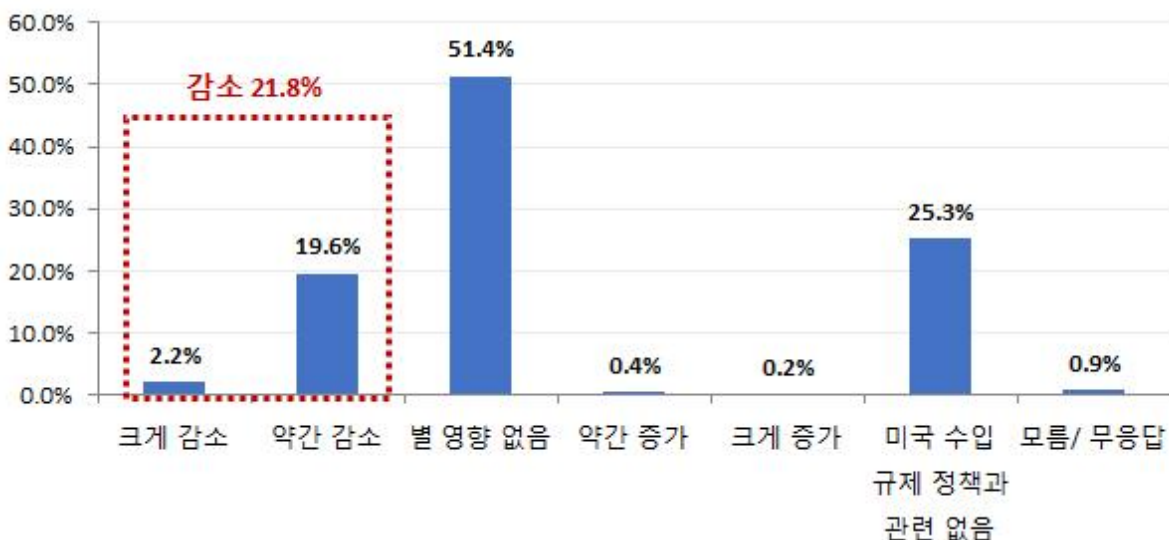
-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 규제 및 FTA 재협상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에 대한 수출 영향 설문 실시
-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455개(대기업 85개, 중소기업 370개) 대상, 전화 및 이메일조사 형태로 실시
- ※ 설문 기간(2018. 3. 12 ~ 16)은 미국 정부가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모든 철강재 수입 국가들에 대한 25% 관세 일괄 부과를 발표한 시기로 최근 정부 협상으로 인한 상황 변화가 반영되기 이전임.

II. 전체 수출기업 설문 결과

□ 미국발 수입 규제 현실화시 수출기업 5개 가운데 1개 피해 전망

- 미국발 수입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기업 21.8%가 향후 수출액이 감소('크게 감소' 2.2%, '약간 감소' 19.6%)할 것으로 응답
- 전체적으로는 '별 영향 없음'이 51.4%로 가장 높고, '미국 수입 규제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음'으로 응답한 기업이 25.3%

< 미국발 수입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액 변화: 전체 응답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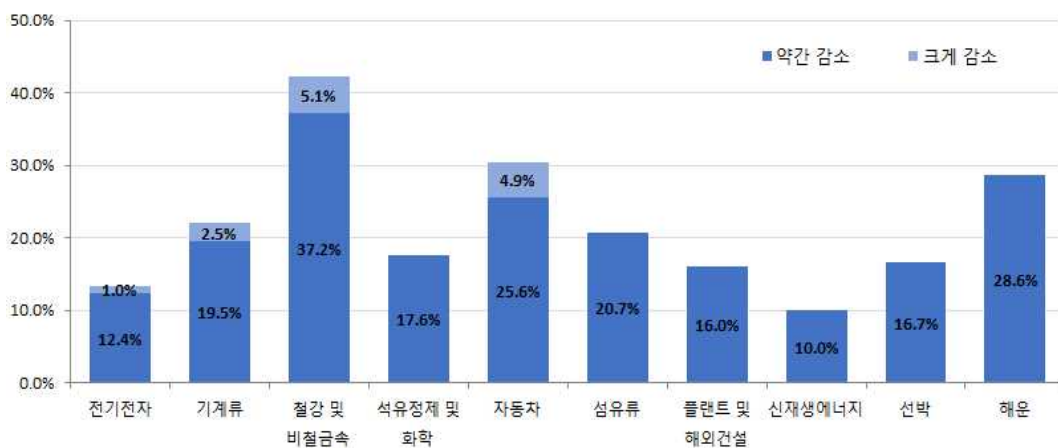
주 : 전체응답 기업 455개

□ 수출액 감소 응답 비율, 철강(42.3%) 가장 높고 자동차(30.5%), 해운(28.6%), 기계류(22.0%) 순

○ (산업별) 철강 및 비철금속 수출기업 가운데 42.3%가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는 자동차(30.5%), 해운(28.6%), 기계류(22.0%) 순

- 수출액 '크게 감소' 전망 비율도 철강 및 비철금속 수출기업(5.1%)이 가장 높았으며, 자동차(4.9%), 기계류(2.5%), 전기전자(1.0%)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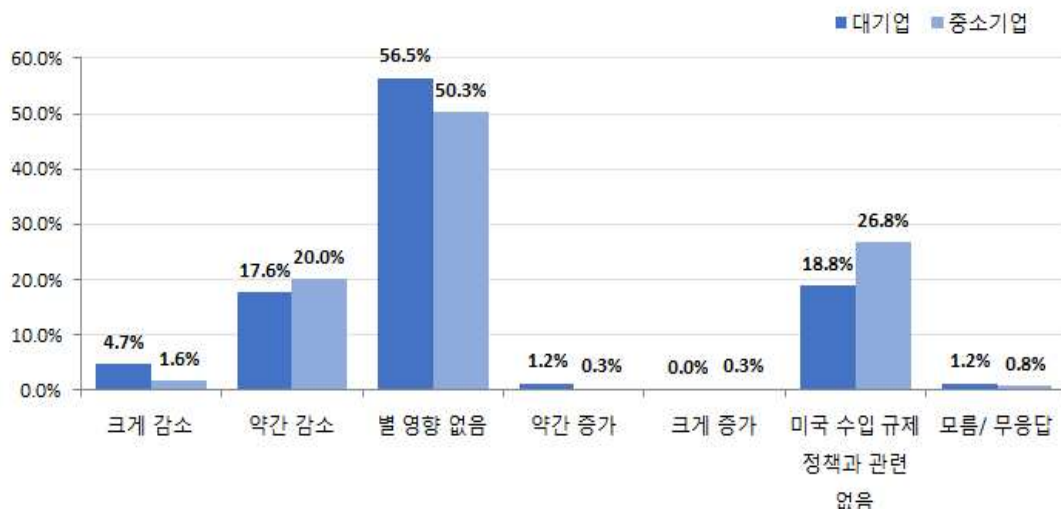
< 수출액 감소 응답 기업 비율: 산업별 >



주 : 전체응답 기업 455개

○ (규모별) 대중소기업 별로 수출액 감소를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 22.4%, 중소기업 21.5%로 최종재 수출 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영향이 소폭 큰 것으로 나타남.

< 미국발 수입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액 변화: 기업규모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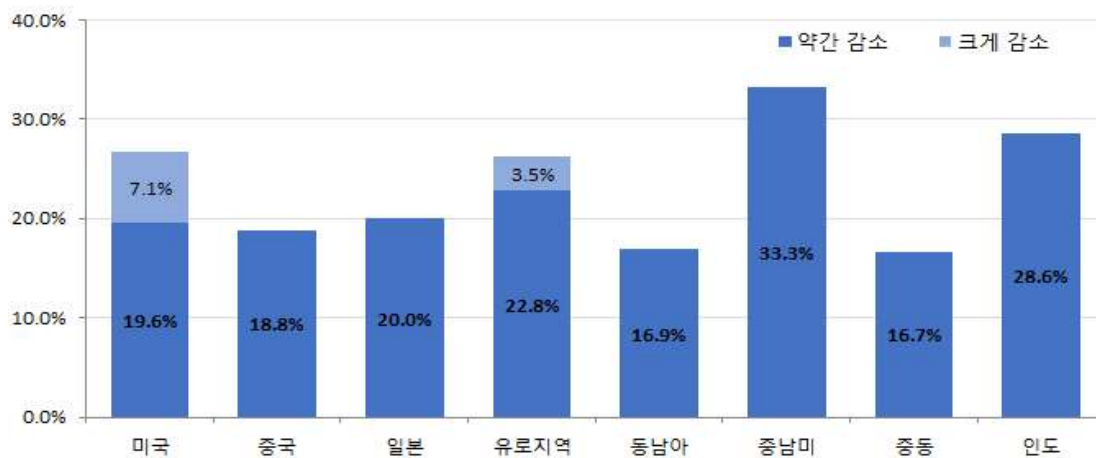


주 : 전체응답 기업 455개

□ 미국 주력 수출 기업 외 중남미, 유럽 등 모든 지역 수출 감소 전망

- (지역별) 미국 주력 수출 기업들이 '크게 감소' 7.1%, '약간 감소' 19.6%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중남미(33.3%), 인도(28.6%), 유로지역(26.3%), 일본(20.0%), 중국(18.8%) 등 미국 외 지역에 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수출액 감소 응답
- 기업들이 주력 수출 지역 외 미국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, 미국발 수입 규제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연관 중간재 무역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

< 수출액 감소 응답 기업 비율: 주력 수출지역별 >



주 : 전체응답 기업 455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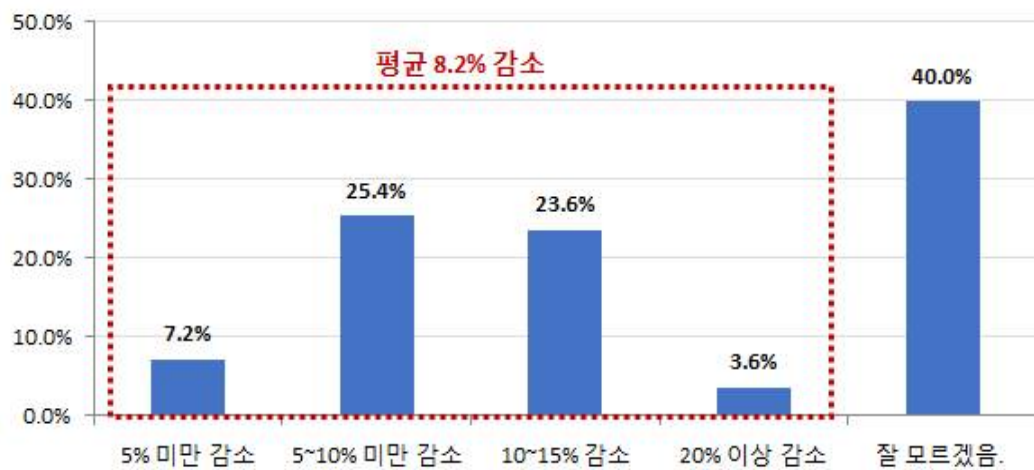
III. 미국 수입 규제안 관련 기업 설문 결과

□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, 올해 수출액의 8.2% 감소 전망

- 현재 가전, 철강, 태양광 패널 등 미국 수입 규제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5개로 전체 설문기업(455개)의 12%
- 미국발 수입 규제안이 현실화 될 때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답한 기업은 총 99개(21.8%)로, 규제 직접 관련 기업이 아니어도 수출액 감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
-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들은 예상 수출액 변화에 대해 '잘 모르겠음'을 40%로 가장 많이 응답해, 해당 기업들도 규제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.

-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 가운데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은 **올해 예상 수출액의 8.2% 감소 전망**
-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 가운데 **25.4%**는 올해 예상 수출액의 **5~10% 미만** 감소를, **23.6%**는 **10~15%** 감소, **7.2%**는 **5% 미만** 감소, **3.6%**는 **20% 이상** 감소를 예상

<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 전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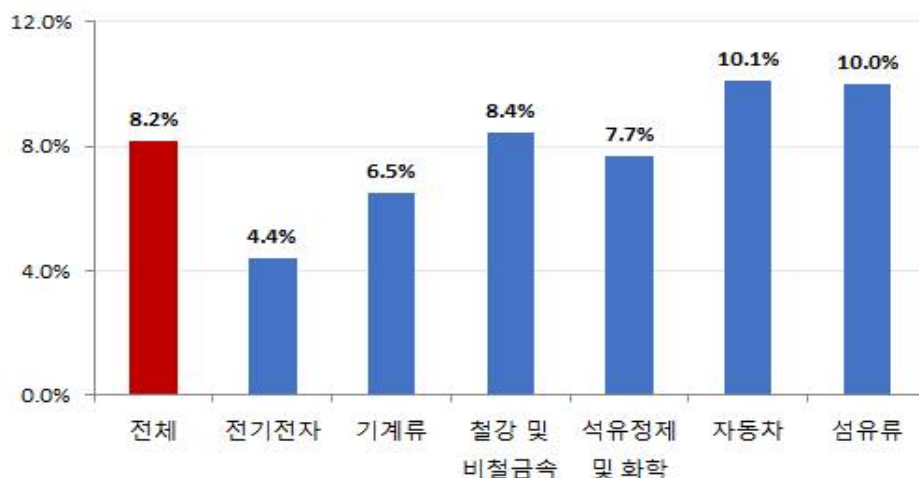


주 :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 55개

□ 자동차 10.1%·철강 8.4% 감소 응답, 미국 수출 8.5% 하락 예상

- (산업별) 자동차 수출 기업들이 **10.1%** 감소를 응답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, 철강 및 비철금속 **8.4%**, 석유정제 및 화학 **7.7%**, 기계류 **6.5%**, 전기전자 **4.4%** 감소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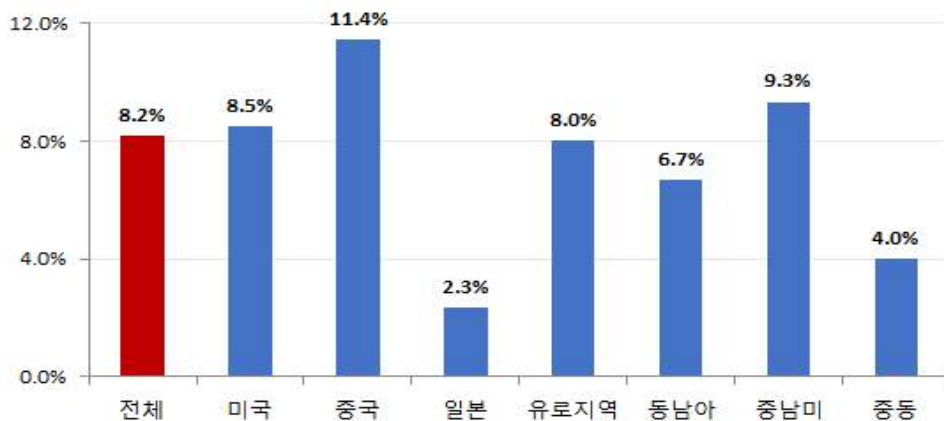
<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 전망: 산업별 >



주 :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 중 수출 감소 응답 기업 33개

- (지역별) 미국 주력 수출 기업들이 수출액이 8.5%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가운데, 중국 11.4%, 중남미 9.3%, 유로지역 8.0% 감소 등 타지역 수출 기업들도 비슷하거나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응답
- 미국의 수입 규제안이 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미국내 산업 유치가 목적이라는 점에 중국 및 중남미 주력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미국 주력 수출기업들보다 더 크게 예상된 것으로 나타남.

<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 전망: 주력 수출지역별 >



주 : 미국 수입 규제안 직접 관련 기업 중 수출 감소 응답 기업 33개

IV. 시사점

- 미국 외 연관 산업 분포된 주변 지역 수출도 감소 파급 예상
-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발 수입 규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, 철강 기업들 외에도 연관 산업 수출 감소가 이어져 수출 기업 5개 가운데 1개는 규제 영향을 체감할 것으로 나타남.
- 지역적으로도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뿐 아니라 중국, 중남미 등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수출 감소 예상
- 미국발 수입 규제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연관 중간재 무역 감소 효과 및 전반적 무역 위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
- 그러나 수입 규제 직접 관련 기업들 가운데 40%가량이 정확한 피해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 세부 내용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어 기업 및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